



급성 외인성 위염

## 이런 저런 위장병

### 급성 위염이란

갑자기 위 점막에 염증이 일어난 것으로 발병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없애 주면 바로 완치가 가능하다. 계속 재발하는 만성 위염이나 소화성 궤양과는 다르다. 또한 위장의 대출혈과 같은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한 위장병 자체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일은 거의 없다.

급성 위염은 크게 급성 외인성 위염과 급성 내인성 위염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급성 외인성 위염은 그 원인에 따라 다시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 1. 음식물에 의한 위염

급성 외인성 위염을 일으키는 병인 중 가장 흔한 것이 과음·과식이다. 또 고추, 후추, 커피 등 위를 자극하는 식품과 달걀, 우유, 생선, 계 등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식품에 의해 발병하기도 한다.

- \*식사 후 팽창하는 듯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든다
- \*명치가 아프면서 구역질과 트림을 한다
- \*신맛을 띠는 구토 증세를 보인다
- \*식욕이 없고 두통과 현기증으로 온몸에 기운이 없다
- \*혀에 백태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

\*염증이 장까지 영향을 끼쳐 설사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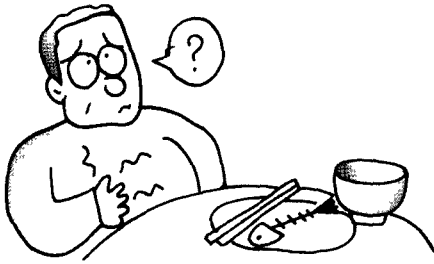
음식물로 인한 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질병을 일으킨 음식물이 위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위 세척이나 구토를 통하여 해로운 물질을 없애 주어야 한다. 집게손가락과 가운데손가락을 이용하여 인두부를 자극하면 구토를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전신을 안정시킨다

하루나 이틀 정도 음식물 섭취를 끊었다가 그 다음 날부터 미음과 죽 등 유동식을 섭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별다른 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며칠 내에 치료된다. 하지만 자각 증세가 없어진 후에도 위 점막의 질환은 며칠 동안 계속되므로 사나흘 내지 열흘 정도 자극성 있는 음식을 피하고 식사요법을 실행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방법이다

#### 2. 급성 부식성 위염

자살을 목적으로 농약을 마셨거나, 부식 작용이 일어나는 가성소나나 포르말린 등 화학 물질을 잘못 먹었을 때 나타나는 위염이다.

식도나 인후가 짓무르고 구토나 메스꺼움과 같은



무산증이나 저산증이 나타날 경우, 종합 소화 효소제를 섭취하거나,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면서 조금씩 횡수를 늘려나가는 식요법을 시행하면 치료가 빨라진다.

증세가 심하게 나타나며, 토사물과 함께 피가 섞여 나오고 이상한 냄새가 나기도 한다 또한 명치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갈증이 난다. 중증일 때는 혼수 상태에 빠지며, 체온이 떨어져 피부가 차가워지고 맥박이 빠르면서도 약하게 뛰는. 부식 물질의 종류·양·농도와 작용 시간에 따라 병의 진행에 차이가 있다.

경증인 경우에는 완전 회복이 가능하지만, 중증인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염증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위와 식도의 유문부가 좁아져 막히는 협착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응급 처지와 더불어 부식성 약제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해독제를 빨리 사용하여 위를 깨끗이 세척해야 한다.

### 3. 급성감염성 위염

몸 속으로 침입한 폐렴균이나 장티푸스와 같은 세균이 위장에서 작용하여 생기는 급성 위염이다. 흔히, 입맛이 없어지고 명치가 더부룩해지는 증세가 발생하고, 복통은 오히려 드물다. 또한 위액의 양이 줄어 무산증이 되는 경우도 있다. 위 내시경을 통해 위 점막이 붉게 부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위 점막이 헐고 출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은 원인 질환인 급성 감염증이 나아짐과 함께 회복되기도

한다

무산증이나 저산증이 나타날 경우, 종합 소화 효소제를 섭취하거나,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면서 조금씩 횡수를 늘려나가는 식요법을 시행하면 치료가 빨라진다

### 4. 급성 화농성 위염

일반적으로 연쇄구균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급성 화농성 위염은 화농균의 감염에 의해 위벽, 특히 위 점막 밑에 국한성 염증을 발생시키는 매우 드문 질환 가운데 하나다.

포도상구균, 대장균도 원인이 되고 있다. 오한과 전열, 그리고 위의 심한 통증과 구토, 고열 증상이 동반된다. 원인균 제거를 위해 항생제를 복용해야 하면 심할 경우에는 위 절제 수술을 받아야 한다.

